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심성의 공향으로 가는 길 '직심로'

#### 법신 ④

다행히 참 불문에 들어온 것은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또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불문에 들어온 사람이 많지만 말이죠, 대개 보면 다른 문으로 간 사람도 있잖아요? 참 이거 복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공부의 절대 복 있어야 됩니다.

난 이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가 날카로워야 되지만 복도 있어야 합니다. 복이 없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연히 공부를 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고집, 고집이 있으면 말이 저 아니 복이니 이놈이 들어볼지를 못해.

저 여러분 신문 봐서 알겠습디만 대원경 보살하고 잘 아는 분입니다만 남자가 토목 사업을 하는데 아들 딸들이 다섯인가 여섯인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애가 다섯 살인가 여섯 살인가, 우리 지미만 한 놈인데 어찌 하다 오대산에 들어가서 큰 스님 만나고 와서 어떻게 됐는지 그만 집에 와서 참선하고 들어앉아 버렸어.

그러니 어린 것들이 찾아 남자가 와서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것들 보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 그래서 방한암 스님 밑에서, 대원사 밑에 집을 지어주었거든. 그러니까 고집이거든요. 딱 뻗어. 남편이다 자식이다 딱 뻗어. 자식도 다섯 살인가 여섯 살인가 그래요...

그후 죽긴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원망할 건데, 보통 상식 같으면 원망할 건데 원망을 안 했어. 신문에 보니, 내 그 사람들 모릅니다. 신문에 보니 애들이 말이죠 그 다섯 살인가 여섯 놈들도 청년이 되고 이리 됐거든.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해서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마운 생각이 나는지, 내하고 얼굴도 모르면.

연간한 사람 같으면 우리 어머니는 자기 혼자 잘 되려고 어린 것들 내버리고, 아버지는 나중에 화병이 나서 죽었거든.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랬다 하고 얼마라도 말하려면 말할 구실이 있을 건데 도리어 어머니가 죽었다고, 책을 낼만 한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뭣인가 책이라도

내겠다고 신문에 봤는데, 그래서 아 참 고마운 분들이다 이랬어요. 고마운 분들이다. 연간한 사람 같으면 원망합니다. 자기 잘 되려고 우릴 버렸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하나 고집인데, 복이 없으면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잘 쓰면 좋고 고집을 잘 못 쓰면 망하고 이런 건데 이 사람의 고집은 뭣이나 공부를 하겠다는 고집이거든요. 생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고집이거든요. 영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고집인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말이죠. 좌우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참 아닌 게 아니라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데 큰 복이 있으면 불법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이해를 하

지니까 어떻든지 여러분들은 모든 복을 그만큼 갖겠다고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읽어 보겠습니다.

인신을 받은 것이 다양한 기틀이라면 불법을 만난 것은 고마운 인연이다. 부처님은 당신 자신의 경험을 통하시어 중생 제각기의 근기대로 팔만사천법문을 여기에 열어놓으시고 특히 격의 선지의 깃발을 드높이셨다. 뿐이라. 세존께서는 이미 심성의 공향에다 팔만사천대의 제트기를 대기시켜 놓으시고 맑은 눈알을 굴려대시며 중생들이 달려와서 입맞대려 타기를 기다리신지 이미 오래다.

이거 여기 비유해서 말했지만 이거 사실입니다. 머리털만큼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석가세존, 우리가 달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구별, 말해주어서 여러분이 듣는다면 죄로 갑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의 소원이 중생제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 써 놓은 것은 머리털만큼의 거짓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생 자기가 안 가는데야 어떻게 하겠어요? 일로 좇아다니고 절로 좇아다니고, 안 가는데야 어찌 하겠어요? 억지로 끄집고 갈 수는 없네. 하하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무엇들을 어정거리느냐. 심성의 공향으로 뛰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니 직심로일 따름이다.

심성의 공향으로 가는 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울로 가는 길 알죠? 우선 심성의 공향으로 가는 길이 이름이 무엇이라. 그놈을 말로 하면 뭐라 하는고? 알긴 하는데 그 이름이 뭣이 있어. 심성의 공향으로 달리는 길은 직심로입니다. 직심로입니다. 다른 거 없어. 곧은 마음 그거 하나뿐이예요. 경계에 닿았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서 나타나는 길, 곧은 길, 직심로입니다. 서울에 가면 종로 무슨로 무슨로 이래 있잖아요? 하하하. 직심로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만 이 말 듣고 이대로 결정하면 그만이에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 스스로 깨치고 남 일깨우고 실천하자

#### ⑧-2 상수불학(常隨佛學)

수행은 신(信)이 근본이며 이 속에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다. 신을 떠나서 주(住)도 행(行)도 회향(廻向), 지(地)도 있을 수 없다. 믿음을 알뜰한 것, 신리실유(信理實有)고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 노력을 하여 얻어진 경우에 무공한 공덕이 있다는 이것은 바로 묘각(妙覺)의 지경이다. 그러므로 신(信)에서 신실(信實)한 지경에서 모든 것을 다 본다. 이는 화엄경(華嚴經)에 있는 바와 같이 신유도원공덕모(信有道源功德母)다. 신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모다.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근원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지경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 신, 믿음이란 아미타불을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미타불의 본원력(本願力)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에 나무(의지)한다. 귀약한다.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만이다. 교학상으로는 이를 타력의존(他力依存)이라고 하는데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할 뿐이다. 아미타불을 객관적으로 볼 때 타(他)이다. 내가 타인 아미타불에 의지하므로 우리는 타에 의지해서 살아 나간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거기 의지한다.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주의 대생명(大生命)에 대생명을 깨친 나에게, 그리고 이를 성취한 나에게 돌아간다. 의지한다는 것이다. 우주의 전 인류를 대자대비로서 사랑하시는 대사회(大社會)를 건설하시는 그에게 이를 깨치고 성취한 나에게 우리는 의지할 뿐이다. 나무아미타불이란 이것이다.

이런 뜻으로 타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절대타력(絕對他力)의 본원력에 의지한다.

아미타경(阿彌陀經)에 순피본원고(順彼本願故)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본원력에 순종하는 연고로 해서 우리는 이에 의지한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뽐내지만 실상은 지지리 못하다. 인간이란 육체만으로 봐서는 생물이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죄악의 공치고, 번뇌 망상과 온갖 어리석은 생각을 빼놓지 않고 잘도 갖 추었다. 우리는 이렇듯 가련한 중생이다. 불쌍하다. 불쌍한 중생이 잘난 체 해 보아야 소용없고 차라리 제가 못생기고 지지리 못났다고 생각하면 갖지 못하다. 이렇듯 못생긴 것들만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이것들이 인간이다. 이생이다. 중생이다. 하고 꾸물거리고들 있다. 대자 대비한 부처님은 이런 우주에 가득 찬 못생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나시었다.

제가 잘 났다는 사람 저 혼자 아무렇게라도 살아나갈 사람은 대자 대비한 부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현대인은 먼저 이러한 아집(我執)을 버리기 전에는 신(信)에 들어갈 수가 없다. 번뇌 망상과 죄악의 몽치인 중생을 아미타불은 한 사람이라도 다 빠졌없이 건져 주고 난 다음에 라야 스스로 성불하겠다는 무연대비(無緣大悲)를 성취하시었다. 우리는 이레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의지한다. 또한 이것이 틀림없는 것을 시방 삼세의 여래(如來)들이 다들 서설증(舒舌證)으로써 증명하였다.

#### “

불학은 사회와 우주의 광범위한 진리를 터득해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

대중과 함께 불법을 실천해 안락에 이르는 생활을 해나가자

#### ”

원효대사는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라는 저서에서 정토로써 본 원을 세움은 오로지 범부를 위한 정토본의 전위범부(淨土本意 專爲凡夫)이라, 하시었다. 유심안락도란 안락한 도에 마음을 노닐게 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으므로 오로지 가진 것이란 대자 대비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전 재산이었다. 대자 대비란 중생 건지기이다. 그러므로 중생 건지기가 부처님의 재산 목록이다.

부처님의 전 재산이 중생 건지기라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뇌는 정토문(淨土門)이 열리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정토의 본뜻은 오로지 죄악 투성이인 범부를 위한 것이고 겸하여 이승(二乘)과 보살을 위하였다고 하시었다. 이승과 보살은 여기서는 애초의 목적이

아니고 후수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약점을 가진 우리 같은 범부로서는 다만 나무아미타불을 뇌이고 아미타불에 의지할 뿐이다.

상수불학(常隨佛學)을 앞에서 항상 부처의 학문을 따라서 배운다고 풀이하였다. 그렇다면 부처의 학문이란 어떤 것일까?

부처라는 것이 원래 자기가 스스로 깨치고, 그 다음에 남을 깨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서 그들이 모여 그 깨친 바를 행동으로써 실천한다. 그리하여 실천하는 행동을 성취한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처의 학문, 불학(佛學)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과학이라는 것, 학문을 하고 실천하고 이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모두 광범위한 불학이다. 그런데 종교의 한 분야로서 불교의 학문, 불교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특정한 것을 가지고 이를 직업의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학도 필요는 하지만 부처님의 뜻으로 보아 사회와 우주의 광범위한 진리를 알고 터득하고 이 진리에 입각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불학의 타이므로 불학이라고 하여 특정한 것을 내세울 것은 없다.

상수불학이라는 이 말은 첫째 내 자신이 공부를 하고 자리행이 된다. 내 자신에게 새로운 행동이 된다.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은 나중일이고 우선 그 공덕이 자기를 중신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혜택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잘 생각해 본다면 자기 방성도 채 안된 사람이 남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부처의 학문을 따라서 배운다. 옳은 것을 따라서 배운다. 지성스러운 것을 따라서 배우고 이를 성취해 하는 일을 우리는 우러러보고 칭찬한다.

상수불학은 이렇듯 중요한 대목이었다. 우리는 상수불학으로써 모든 중생과 더불어 저 안태한 극락의 지경에 이르러 거기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경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이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

축령산 보현사에서 '제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선근공덕의 인연으로 무루 동참하여 축령산 천하명당터의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시 : 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 2017년 3월 22일까지

장소 : 축령산 보현사

문의 : ☎ 031)591-9023 (기도동참자 1인당 1년 10만원)

매월 셋째 토요일 신묘장구 철야기도 후 천도제 봉행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천일기도도량 축령산 보현사 보현선원 진명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23-34

##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교육원 학인모집

- ◆ 범불경력 50년 대구팔공산 소리 최중보유자 동현스님!
- ◆ 사모곡,회심곡,백발가,참회곡,부모은중경(음반취입 632호)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교육대상 : 비구, 비구니스님, 또는 사찰에 항시 상주하시는 스님이 계시지 않아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은신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드리겠습니다.

◆ 초 급 반 : **교육과정** - 초발심사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도량서, 중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초급(일반)수업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초급(속성)수업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초급일반 : 10개월 / 초급속성 : 5개월

◆ 중 급 반 : **교육과정** - 시련,대령관옥, 시왕불공, 사시편, 봉송편, 상가염불 불상점안, 전전안, 안택고사, 방생편  
중급(일반)수업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중급(속성)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중급일반 : 15개월 중급속성 : 10개월

◆ 작법 (3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까지**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회의재바라. (오공양장법)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 팩스 053)851-2666 / H·P 010-2547-4200

**원장 동현 합장**